

# 社史 편찬에 열기뿐는 출판계 老鋪들

## ‘해방50년’ 맞아 을유·동아·현암 등 정리작업 한창

올해는 해방 50년이 되는 해다. 출판에 있어서도 해방 50년은 우리말 우리글로써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게 된, 본격적인 의미의 한국출판이 반세기를 맞는 해로 의미가 각별하다. 그 각별한 의미의 해에 맞춰 몇 되지 않는 해방동이 출판사들은 물론, 40년 이상 된 유서깊은 노포(老鋪)들도 그 출판사의 역사인 ‘사사’ 정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출판업계의 사적(史的) 정리작업이 활발히 계획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그동안 출판업계의 사적 정리작업은 “남의 기록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 기록에는 소홀했다”는 자조의 소리가 나올 만큼 기초자료조차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실(逸失)했던 것이 사실. <표>에서도 보듯 사력(社歷)이 40여년이 넘는 오랜 역사의 출판사들 가운데 그 출판의 공식 기록이라 할 만한 사사가 나와 있는 곳은 현재 3, 4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통사상 의미부여가 남다른 ‘50년’을 기점으로 올해는 출판계의 ‘기록 소홀’ 오명은 상당부분 극복될 전망이다.

### “한국출판사의 부분사” 고무적인 현상

올해 50년을 맞는 곳으로는 동아출판사·을유문화사·장왕사·담구당·학원사·현암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동아출판사는 9월19일, 을유문화사는 12월1일의 창사기념일에 맞춰 각각 사사를 내용을 계획이다. 현암사의 경우는 비록 사사는 아니지만 ‘연표’를 새해들어 이미 펴냈다. 현암사의 형난옥 부장은 “지난 74년 창립 30주년을 맞으며 조상원 회장이 쓴 회고록 「책과 30년」에 우리 출판사의 역사가 다 들어 있어 따로 만들 필요를 못 느낀다”며 대신 상세한 연표와 ‘현암저술상’ 제정 등으로 5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겠다고 말한다.

동명사·삼중당·정음사와 더불어 일제시대에 창립돼 올해로 사력 70년을 자랑하는 명문당은 아마 우리 출판업계에서는 최장기로 기록될 「70년사」를 내용을 예정이다. “영창, 박문 등 일제때 함께 출판했던 출판사들이 다 사라지고, 삼중당과 정음사마저 남의 손으로 넘어간 지금 그 당시의 출판사정을 이야기할 사람은 우리 출판사밖에 없다”는 것이 70년사 출간계획을 밝히는 김동구 사장의 자랑이다. 화보 중심의 400쪽 분량을 구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오는 5월10일로 창립 40주년을 맞는 기독교문사가 「40년사」의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며, 이미 「40년사」를 낸 바 있는 대한



기왕에 나와 있는 출판사 및 유관단체들의 社史.

교과서가 오는 98년의 50주년에 대비해 이종국(전 대한교과서 출판부장, 현 대전전문대 출판학과 교수)씨의 주도하에 준비중이다. 한편, 개별 출판사의 사사는 아니나 「출판·인쇄업계 100년사」(가제)가 조성출(전 삼성출판사 편집주간)씨에 의해 집필, 3월 출간될 예정이고, 보진제와 더불어 출판계와 떼놓을 수 없는 75년 역사의 평화당인쇄도 현재 계획 중이다.

이처럼 올해는 여태까지 출간된 것(<표> 참조)보다 더 많은수의 출판사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왕사의 이대의 사장은 “개별 출판의 사사는 한국출판사를 작성할 때 ‘줄기’와 ‘잎’에 해당하는 부분사이기 때문에 개별사가 잘 정리되어 있을 때 우리 출판의 역사가 더욱 풍부하고 바르게 기술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근의 편찬열기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되면 기왕에 나와 있던 계몽사·대한교과서·박영사·대한기독교서회 사사들과 더불어 해방전후 출판계 역사의 큰 가닥이 잡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출판보다는 인쇄업으로 더 유명한 보진제의 「보진제 70년사」를 비롯해 「한국협동조합 35년사」 「대한출판문화협회 40년사」 등 유관단체의 자료집이 나와 있고, 사력이

짧은 웅진출판사의 「웅진 10년사」가 노포들 틈에서 드물게 이채를 띤다. 한편,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편찬의 전단계가 될 만한 100여페이지 안팎의 연표나 컬러화보집 등 간략한 준사사 형태의 책자를 내놓은 곳도 더러 있다. 범우사의 「범우 25년사(초)」, 삼성출판사의 「창업 40년 약사」 등이 그런 범주에 든다.

### 옛 자료 분실해 속수무책인 곳도

올들어 이렇듯 사사출간이 봄을 이루는 것은, 늘 생각은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미뤄왔던 것을 ‘해방 50년’이란 의미있는 연대를 맞으며 출판사들이 서두르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제 몇 남지 않은 출판 1세대들조차 유명을 달리고 나면 누가 당시를 증언하느냐”는 다급한 물음들이 당사자들은 물론 2세대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킨 결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의욕과 책임감에도 불구하고 “사사편찬은 의욕만큼 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다”는 것이 이미 출간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출판사들의 한결같은 토로다.

“사사란 기업들이 자기 기업의 성장과정을 정리한다는 것 외에도, 이를 통해 기업내에 체화되어 있는 경영노하우나 기업문화를 후배

### 출판사들의 ‘사사’ 편찬작업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주로

역사가 4, 50년이 넘는 노포들이

중심이다. 옛자료의 분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사사를 내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는 곳도 많다. 사사편찬은 너무

창업주의 업적만 부추기기보다는

출판된 책의 목록, 당시 출판계 안팎의

정황도 아우르는 등 객관적인 서술이

무엇보다 기본이 돼야 한다.

기업인들에게 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훈구 지음 「회사사의 이론과 실제」)는 정의처럼 출판사들의 사사도 그런 일반기업 사사출간 목적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일조각의 최재유 전무는 이에 부연하여 “누군가 새로 출판을 시작할 때 같은 분야 출판사의 사사는 좋은 바탕이 된다”며, “여건만 허락된다면 내는 게 당연한데, 영세한 출판사의 현실은 아무리 역사가 오래 됐다 해도 마음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일조각도 마찬가지다”고 말한다.

여타 대기업들과 달리 출판계의 사사 정리가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출판사들의 ‘단명’ 혹은 ‘휴면’ 현상 때문이다. 사사정리는 사세(社勢)와 관련 깊은데, 오래된 출판사들 가운데는 사세가 옛날만 못하거나 ‘앗혀진’ 경우가 많아 새삼 정리한다는 것이 낯간지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둘째, 출판업 자체가 워낙 영세·소규모이다 보니 사사를 위해 돈과 인력을 투입할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갈수록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짧아 당시를 증언해줄 사람이 없는 점이다. 셋째, 누누이 언급되는 사항으로 자료의 미비다. 올해 47년이 되는 법문사의 배효선 사장은 “전신인 위성문화사 시절 자료가 거의 없어 50년사를 준비하고 싶어도 걱정이다”며 난색을 표하는가 하면, 향문사의 나중렬 사장은 “여기저기 많이 옮겨다녀 보관된 자료가 없다”고 밝혀 “선대의 작업을 정리해야 한다”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2세 출판인들의 공통된 고민을 털어놓았다.

최근 활기를 띠는 사사편찬에 대해 뜻있는

## 隱石·玄岩 두 어른의 歡談

“여보, 우리가 출판을 시작한 지 어언 50년이 되었구려”

崔德教

출판인·창조사 대표

## 1960년 이전 창립된 출판사들

출판사	대표	창립년도	사사유무	출판사	대표	창립년도	사사유무
계몽사	김준식	50.11.15	○	을유문화사	정진숙	45.12.1	진행중
기독교문사	한영제	55.5.10	진행중	일조각	한만년	53.9.14	×
대한교과서	김성식	48.9.24	○	신아사		56.1.5	×
대한기독교서회	김소영	1890.6.25	○	일지사	김성재	56.6.11	×
동아출판사	김현식	45.9.19	진행중	장왕사	이대의	45.10.1	×
박영사	안종만	52.11.18	○	일신사	윤광모	56.11.15	×
동명사	최국주	08.11.1	×	탐구당	홍석우	45.11.1	×
명문당	김동구	26.10.1	진행중	행림	이갑섭	34.	×
법문사	배효선	54.12.12	×	학원사	김영수	45.9.22	×
보진재	김정선	12.8.15	○	현암사	조근태	45.11.9	×
삼성출판사	김진용	51.3.3	×				

출판인들은 “사사의 본질은 기업홍보다. 하지만 ‘史’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때로 일부 사사가 창업주의 업적만을 너무 부각시켜 빈축을 사는 일이 있는데, 잘못하면 욕을 먹기 알맞다”며 객관적인 서술을 강조했다. 또 어느 중견출판인은 “잘된 부분만 쓸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도 써야 한다. 또 당시 사회적 정황이나 출판계 주변 얘기도 아우러야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주문한다. 또 어떤 이는 “출판사의 사사는 창업주의 얘기나 전·현직 직원, 회사의 지난 역사 기록도 좋지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출판된 책의 목록”이라며 “책과 저자를 중심으로 꾸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 객관적 서술이 생명, 개성있는 내용구성을

일부 출판사에서는 ‘창업기’ ‘시련과 극복기’ ‘발전기’ ‘도약기’ 등 일반적인 사사구성을 벗어나, 이왕 만들 바엔 ‘개성있는 사사’로 만들겠다고 의욕을 내보이기도 한다. 동아출판사 사사편찬팀의 최영미 씨는 「동아 50년사」의 특징을 “에피소드 중심의 재미있는 사사”로 요약한다. “이미 「두산그룹 100년사」에 동아출판사의 ‘역사’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객과 사원들의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비사’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옛이야기의 재현보다 전자출판, 슈퍼 네트워크 등 기업 다각화와 미래가 주내용이다. 을유문화사의 고정기 상무는 “「이와나미 70년사」를 전범삼아 도서목록을 좀 확대시킨 것같이 만들겠다”고 말한다. 즉, 그 책이 만들어졌던

시대상, 출간 계기·과정 등 ‘책의 역사’로 보는 사사를 내겠다는 것이다.

출판사 사사는 대개 그 출판사에 오래 근무했던 전직 임원이나 편집부원 1, 2명으로 팀을 구성, 대략 1년여에 걸쳐 집적적으로 기획·집필된다. 옛 자료를 바탕으로 구술이나 취재를 통해 역사를 재구성한다. 그래서 독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요리백과」에 얽힌 이야기라든가, 책이 일부로 팔리게 된 내력, 가정방문 판매를 본격 개척한 이야기”(「계몽사 40년사」 중에서) 등 생경한 업계 과거사를 사사를 통해 비로소 알게 된다. 이러한 개별 출판사의 사사가 모여 바로 한국의 출판역사가 되는 것이다. 사사가 “부끄럽더라도 사실에 바탕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역사성 때문이다.

한때, 「책과 30년」(현암사 조상원 회장),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김상만 전동아출판사 사장), 「학원세대와 김익달」(학원사 김익달 전사장), 「통문관 35년사」(이겸로 통문관 사장), 「출판인 정진숙」(정진숙 을유문화사 사장) 등 출판인 자서전이 줄이은 적이 있다. 출판업계에 사사출간이 붐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출판도 1인 오너체제를 벗어나 그만큼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50년을 맞는 출판계의 한 변화다.

— 정혜옥 기자

우리 출판계에는 여든이 넘는 두분 어른이 계신다. 두분 다 이름만 걸어놓은 회장이 아니라, 아침 아홉시면 어김없이 자리에 나와서 회사일을 총람하는 현역이다. 한분은 새해에 여든넷이 되는 隱石어른(을유문화사 鄭鎭肅회장)이고, 또 한분은 여든셋이 되는 玄岩어른(현암사 趙相元회장)이다. 이처럼 장수하시는 어른이 계시다는 일, 이는 개인의 흥복일 뿐 아니라, 우리 출판계의 자랑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세월에 두 어른이 한자리에서 점심을 했다. 별다른 미담이창이 있는 야트막한 기와집, 주안상을 놓고보면 셋이나 넷이 앉기에 알맞은 간반쯤 되는 온돌방이다. 이 집에는 큰방 작은방 해서 여러개의 방이 있건만 두 어른이 만날 때는 으레 남창이 있는 이방에 드신다. 술이 있고 안주가 있고 때로는 주모(酒母)가 나와 장단을 맞추기도 하는 그런대로 옛맛이 나는 집이다.

두 어른은 마주 앉고 나는 두 어른의 좌우편이 되는 가운데에 앉게 된다. 나는 두 어른의 춘추(春秋)에 비하면 아직 예순 열마, 예컨대 내가 국민학교 1년생이라면 두 어른은 대학 2년생이요 3년생이다. 같은 자리에서 대작(對酌)하기란 버릇이 너무 없는 줄로 안다. 그러나 두 어른은 언제나 허물없이 옆자리에 앉게 불러 주신다. 그리고보면 내가 두 어른을 모시고 지내온지도 어느덧 30년이 훨씬 넘었다. 그래서 나는 이따금 말문이 막힐 때면, “술은 이 어른께서 가르쳐 주시고 담배는 저 어른께 배웠다”고 어리광을 부린다.

그런데 두 어른은 지난날 중순에도 만났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 자못 궁금하다. 술은 이미 한두잔씩 하신 다음이라, 마음은 마냥 소년인 듯 그저 웃음이 터지는 이야기만을 풀어놓는다. 배우가 무대에서 열연을 할 때 관중은 어디까지나 조용히 해야 한다. 그리고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렇듯, 나도 두 어른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 이야기란 하는 재미보다도 듣는 재미가 더 있는 법, 그러면서 챙길 것은 챙겨 드린다.

이윽고 한 어른이, “여보, 우리가 책을 펴내는 일을 시작했지가 어언 50년이 되었구려”하고 운을 댄다. 그러자 또 한 어른이 “참 그렇군요, 50년이란 세월이 정말 속절없이

흐른 것 같소”하고는 그야말로 감개무량한 듯, 다음 말을 얼른 잊지 못한다. 그렇다. 을유문화사와 현암사가 창업한 지 올해로 꼭 50년이 된다. 광복 50주년과 나이가 같다.

1945년 8월 15일, 민족이 해방되던 날, 말을 찾고 글을 찾고 나라를 찾았던 그 감격의 날, 그때 이 두 어른은 서른이 갓넘은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이었다. 그 벽간 감격을 안고 민족의 긍지를 내세우며 회사를 세우고 출판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1945년 12월 1일, 서울 종로 2가 영보빌딩에 회사를 차린 을유문화사. 그 ‘을유(乙酉)’란 새날을 밝히려 뚝치는 닭, 해방된 그 해의 간지(干支)에서 따온 이름이다. 창업멤버를 보면 민병도(閔丙燾)사장(30세, 뒷날 한국은행 총재)·정진숙 전무(34세)·윤석중(尹石重) 주간(35세)·조풍연(趙豐衍) 편집국장(32세), 모두가 패기만만한 30대의 청년들이다.

또 현암사는 1945년 12월 9일 대구에서, 조국에 돌아온 김구(金九)선생을 찾아가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盟山草木知)’라는 격려의 휘호를 받아 실으면서 「건국공론(建國公論)」이란 잡지를 낸다. 그때의 멤버로는 조상원·최석채(崔錫采, 전 조선일보 주필)·유기영(柳驕榮, 문필가)·정태영(鄭泰永, 금융인)·공원상(孔元相, 정당인), 이 또한 30대의 청년들이다.

그날 두 어른의 이야기는 끝간 데 없이 펼쳐졌다. 연륜과 세월이 화음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꽃을 피운다. 앞에 놓인 술잔을 응시하면서 쏟아내는 인생과 사업, 어려웠던 한국의 출판, 험난했던 우리 시대의 역사, 그 어느 대목인들 귀중한 자료가 아닌 것이 없다.

그리하여 두 어른은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흘러져 있는 이야기, 숨어 있는 이야기를 다 모아서 「한국출판50년사」를 엮었으면 참 좋겠는데……”하고는 잔을 맞대고 높이 건배한다.

한국 출판계의 두 거목(巨木), 부디 천수(天壽)를 누리시며 정정(亨亨)하시라.